

꿈이 있는 곳에 언제나 미래

꿈을 품은 사람되기

이창곤 | 한겨레 사회부 기자

영국 아이들은 베컴같은 축구선수의 꿈을 갖고 있다. 어른이나 아이나 꿈은 인간의 동력원이 된다. 언제나 자신의 10년 뒤를 꿈꾸며 나아가는 인생은 밝고 희망차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다. 미래를 위해 아이들과 이런저런 꿈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

영국 아이들

베컴같은 축구 선수가 꿈

요즘 아이들의 꿈은 뭘까? 필자가 체류하고 있는 영국 아이들의 상당수는 축구선수가 꿈이다. 아이들은 내담없이 모두 '데이비드 베컴'을 동경한다. 세계적인 프로 축구선수인 그는 엄청난 돈과 유명세에 멋진 배우자 등 현대인들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영국인들에게 그는 하나님보다 더 유명하다고 할 정도이니 더 말해 무엇하랴. 그러다보니, 일간지들은 신문을 팔기 위해 거의 매일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뉴스거리로 담는다.

심지어 그가 아들을 유치원에 처음 보낸 뒤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1면을 장식할 정도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았다. 초등 4년의 아들 녀석은 '모르겠어요'라며 그저장난스레 깔깔대며 웃기만 했다. 재차 물어도 모르겠다고 한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중 1년의 두 조카는 그저 돈 많이 벌고 싶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녀석들

의 꿈이 너무나 가난한 것 같아 아버지로서, 삼촌으로서 깊은 책임감이 밀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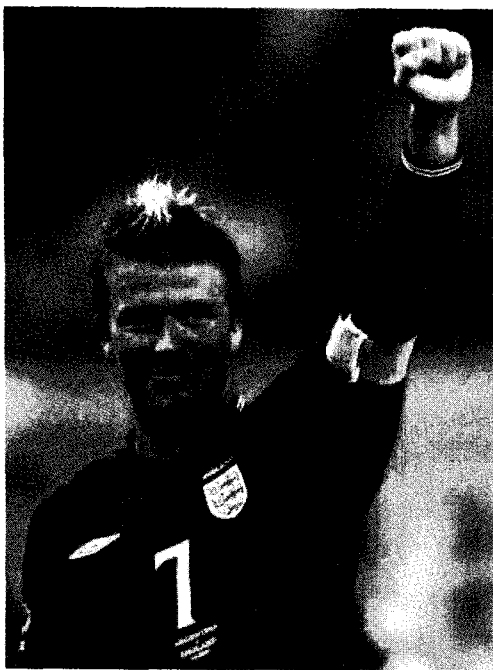
꿈, 인생을 좌우하는 운명

개인적으로 어른이나 아이나 살아가는 데 꿈은 매우 중요하다. 꿈이 없는 사람은 갈 곳 잃은 난민처럼 삶이 곁돌기 십상이다. 꿈은 인간의 동력원이다.

어린 시절 가슴 속에 담은 뜻꿈이 때론 우리들의 미래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독일학자 술리만은 어릴 적 책 한권을 선물로 받았다. <어린이를 위한 역사 이야기>가 그것이다. 그는 이 책에 담긴 트로이 이야기에 깊이 매료됐다. 트로이성이 그리스 연합군에게 무너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는 언젠가 트로이를 찾을 것이라고 결심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트로이는 오랜 옛날의 신화나 전설 따위에 그쳤지만, 술리만에게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자 꿈이었다. 마침내 서른 여섯의 나이에 그는 하던 사업을 접고 트로이성을 찾아나선 끝에, 터키 서쪽 한 언덕이 트로이성이 있던 곳이란



사실을 처음으로 발표할 수 있었다.

이처럼 꿈은 때론 한 사람의 인생행로를 좌우하거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한다. 별보기를 즐겨하던 시골 소년이 천체물리학자가 되는 사례 등에서 보듯 알게 모르게 어릴 적 꿈이 우리들의 삶을 밀고 간다는 생각이다. 필자가 어린시절 학교 선생님과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장래희망에 관한 질문을 자주 던졌다. 그 땀 남자아이들은 대통령, 여자 아이들은 선생님을 꿈꾼다고 답하곤 했다. 실제 그 자신의 꿈 이라기 보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정답'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꿈이 있는 곳에 언제나 미래

필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4년 때였다? 지금도 제목을 또렷이 기억하는 책, <어린이해동명장전>을 읽으면서 장군을 꿈꾸었다. 이순신, 계백, 김유

신 등 명장들의 활약상을 읽은 뒤 한동안 아이들과 칼싸움에 열중했고, 누가 물으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장군이 되고 싶다고 목에 단단히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초등 6년 때로 기억하는데 집에 라디오가 처음 생기고 더욱이 삼촌네에서 마을에 단 세집만이 갖고 있는 텔레비전을 들이면서부터는 이번엔 축구 경기를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다. 지금도 생각나는 장면은 시골 집 뒷마루에 앉아 "차범근 선수 왼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네 손살갈군요"라며 소리내며 아나운서 흉내를 내는 일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유명 소설가나 시인들의 전기를 접하면서 꿈은 작가로 바뀌었다. 그들의 변화무쌍한 인생살이가 너무나 멋져 이 시절 문예반을 들락거리거나 문집을 만드는 등 작가 흉내를 곧잘 내곤 했다. 이 때의 턱없는 꿈때문인지, 지금 그 언저리에서 글을 쓰면서 먹고 사는 게 아난가 싶다. 솔직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거릿 미첼처럼 언젠가 딱 한편만이라도 멋진 작품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있다.

사람은 꿈꾸는 만큼 이룬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이는 '꿈이 담긴 미래가 빠른 속도로 다가와 오늘이 된다' 고도 말한다. 꿈은 때로는 삶의 나침반이며, 설계도며, 등대이기도 하다. 꿈꾸는 자는 이를 수 있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에 가까이 다가간다. 언제나 자신의 10년 뒤를 꿈꾸며 나아가는 인생살이란 밝고 희망차다.

비록 허튼 꿈일망정 꿈이 있는 이에겐 미래가 있다. 모두들 살림살이가 빠듯해 어려움이 적잖은 요즘 하루쯤은 아이들과 함께 이런저런 꿈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다.